

[사람in] 전홍성 농어촌공사 파주시사장 "지속가능한 농촌 만드는 데 최선을"

[표명구]



전홍성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장이 중부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표명구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증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파주시사는 농정의 최일선에서 파주, 양주, 동두천 등의 농지 총 6천13ha를 관할하며, 지역 농업인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 수자원 확보 및 효율적 관리, 농지은행,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의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홍성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장은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지사장은 "최근에는 농촌 공간의 가치가 단순한 생산을 넘어 환경과 경관, 삶의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과 주민 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올해 역점사업 계획은.

"2025년 파주시사는 급변하는 농촌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조성
과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로 전국 최대규모의
농지은행 사업비를 100%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홍보를 강화해
매입비축 및 경영회생 사업은 상반기에 물량을 집중 확보·추진하겠다. 농지연금 가입
률이 낮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고령농의 안정적 은퇴 지원을 위한 농지이양 은
퇴직불사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되는 농업인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정 용수확보를 위해 필요한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접경지역의 상습 가뭄 해갈을 위해 양수장을 신설하고 관로를
개설하는 다목적농촌용수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이상기후 대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해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농어촌의 현실과 현안은.

"농촌은 현재 고령화, 인력 부족, 농업소득 정체라는 삼중고에 처해 있으며, 최근에는 관세
이슈 등 대외적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또한 파주시와 같은 도시 인접 지역은 개발에 따라
농지면적이 계속 줄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 공동체도 축소되고 있다. 농촌을 회복시키
기 위해서는 청년농 유입 및 농업소득 증대를 비롯해 농촌 정주여건의 개선과 공동체 회
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사에서는 농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일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어촌 만들기 위해 지자체 및 주
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상이변으로 홍수 등 자연재해가 예측 불가능한데, 대책은.

"최근 국지성 폭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농업 생산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
히 파주시사가 관리하는 임진강 하류지역은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경기도에
서 가장 많은 27개 배수장이 설치돼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CTV, 자동수위
계 등 원격 관리체계를 통해 실시간 호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호우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 체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과거 강수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
다."

- 파주시사의 운영방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2025년 무재해 달성을 위해 빈틈없는 현장 안전관리로 시설물과 작
업장의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할 것이다.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인근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동
식 CCTV 확대, AI활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

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고자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내부적으로도 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업무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수시로 파악하고 조치하며, 발전적 의견은 공유함으로써 조직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다. 앞으로도 파주시사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농촌,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표명구기자